



티켓을 사러가는 노부부.
기차대합실이라기 보다는 오페라극장의 매표소 같은 분위기이다.



공중화장실의 모범 답안 -

런던 위털루 역 화장실



글·사진 홍 하 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전문위원
MBC 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저서: '일본 뒷골목 옛보기', '프랑스 뒷골목 이야기',
'지구촌 뒷골목 음식 한 그릇'
소설: '외인부대원 프레임'

세계 최고의 맥주중에 하나인 기네스 흑생맥주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선술집인 펍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아일랜드 산 흑맥주인 기네스도 실컷마셨다.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맥주이다. 여행을 하면서 세계 여러나라의 맥주를 100여종 정도 마셔보았다.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맥주는 기네스 흑 생맥주이다.

1696년부터 생산되었으니까 3백년의 긴 역사를 가진 맥주이다. 더운 한 여름 런던 시내를 걷다가 짹짹하면서 시원한 기네스 생맥주를 하프 파인트(약 300cc, 2천 원 정도)를 마시면 더위가 싹 가시면서 영양가도 높아 배가 든든해진다. 영국인들은 일하는 중간 중간에도 선술집인 펍에 와서, 서서 맥주를 한잔 마시고 다시 일하러 간다. 영국에 가서 일할 때는 기네스 생맥주를 마시는 재미가 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펍에 가면 영국의 서민들과 어울려 맥주를 마시면서 잡담을 하는 즐거움이 있다.

자아, 이제는 볼일을 다 마치고 파리로 건너가야 할 시간.

런던에서 파리를 가는 방법

런던에서 파리로 가는 방법은 세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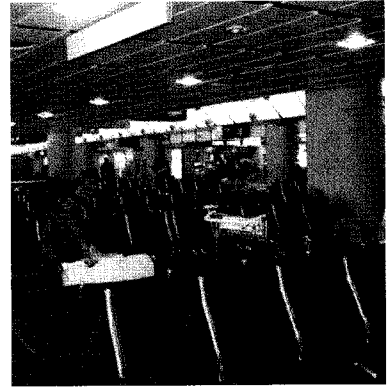
비행기, 배, 기차가 그것이다. 그러나 런던에서 파리를 갈 때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행기를 타러 히드로 공항으로

나가서 비행기표를 끊고, 여권 보여주고 서서 통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배도 마찬가지이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도버해협을 건너는 5천톤급 배가 운항하고 있다. 이 역시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런던 하구의 그리니치 항구까지 한시간 반이나 기차를 타고 가야하고, 다시 도버해협을 1시간 반 걸려서 건너고 프랑스 북쪽의 칼레항구에 도착하면 거기서 다시 파리까지 두시간 이상 기차를 타야하기 때문이다. 요즘 도버해협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광객 밖에 없다. 1분, 1초가 아쉬운 비즈니스맨들은 역시 기차를 이용한다.

그 기차를 타는 곳은 런던의 중심인 워털루 역, 거기서 기차를 타면 파리 시내의 가르드놀, 즉 파리 북 역에 2시간 반만에 승객을 내려준다. 나 역시 한때는 재미삼아 배로 도버해협을 건너기도 했지만, 요즘은 워털루 역으로 가서 파리까지 가는 초고속 열차인 유로스타를 이용한다.

▼워털루역 승객대기석, 의자에 최대한 예술성을 가미했다.



평점은 시설의 크기 A, 편리성 A, 쾌적함 A, 게다가 예술미까지 갖춘 최고의 화장실이었다

기차를 타러 워털루 역으로 간다.

워털루 역은 이제 고전이 되어버린 영화『애수』로 유명해졌다. 주인공인 남녀가 이 역에서 애정 어린 포옹을 하고 서로 헤어지는 명장면을 이 역에서 찍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 속의 그 건물은 이제 없다. 오늘날의 워털루 역은 초현대식으로 바뀌었다.

고색창연한 그 역사(驛舍)의 건물을 부수어 버리고 새로 깔끔하게 지었다. 낡고 오래된 것을 보존하기 좋아하는 영국인들도 시대의 도도한 흐름 앞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삼나라인 영국이 유럽금융의 중심으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교통이 불편해서는 그 위상을 계속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도버해협에 세계최초로 해저터널을 파고 거기에 시속 230km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인 유로스타를 운행하게 했다.

워털루 역에 들어선다.

역사 안은 모두 최고급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꾸며져 있고, 천정으로 거대한 채광창을 내서 조명을 켜지 않아도 눈부시게 밝다.

거기에 국제선 기차역답게 서점이나 카페, 식당, 기념품 코너가 즐비하고 수백개의 대기석 의자도 화사한 디자인으로 잘 정돈되어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21세기를 앞서가려는 영국인의 자세를 볼 수 있다.

21세기는 도시 대 도시의 경쟁시대

앞으로 21세기는 국가 대 국가간의 경쟁력의 시대를 지나 도시 대 도시의 경쟁력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어떤 도시가 국제 비즈니스를 하기에 편리한가 하는 것이 바로 그 관건이다.

그러한 인프라의 첫 번째 조건으로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교통망이 항공으로, 초고속열차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물려드는 비즈니스맨들이 일하기 편하게 통신, 숙박, 현지교통이 편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영종도 공항은 비행장으로서의 시설은 훌륭하지만, 지하철이 서울 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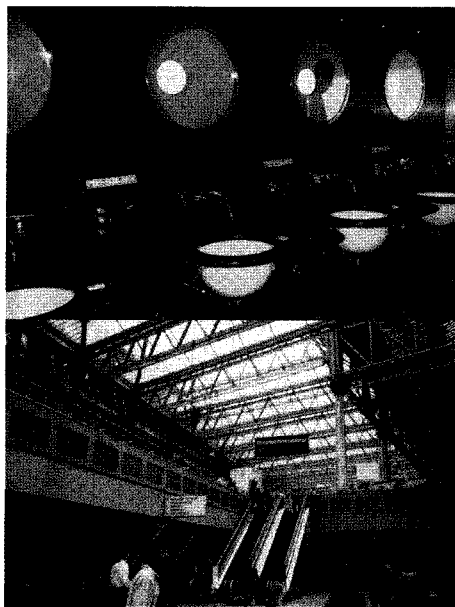
워털루역 승강장. 채광창으로 자연채광을 하므로써 실내를 한껏 밝게 유지하고 있다.

않다는 점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나 홍콩의 첵랍콕 공항은 그런 면에서는 영종도 공항보다 앞선 인프라를 갖고 있다. 뼈뺀 경비를 가지고 출장을 나온 비즈니스맨이나 여행객들이 값싸고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편리한 교통의 다음 조건으로는 먹고 자는 것이 편리하면서 싸야한다. 서울이나 수원엔 식사해결은 비교적 싼 편에 들어간다. 그러나 잠을 자는 것은 비싼 편에 들어간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여관 같은 시설에는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화장실 문제이다.

프랑스와 영국의 화장실 비교

화장실에 인색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파리에서는 볼일 보기가 참 나쁘다. 우선 화장실이 절대부족이다. 근래에 3프랑짜리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도 절대부족이다. 결국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낮에 이별주로 마신 기네스 생맥주때문에 으으, 오줌이 마렵다. 기차역으로서는 대륙과 섬나라인 영국을 이어주는 관문인, 워털루 역의 화장실을 찾는다. 몇 번 두리번거리지 않았는데, 화장실 팻말이 쉽게 눈에 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보니. 우선 화장실이 시원시원하게 넓다. 한꺼번에 50~60명 정도가 큰일, 작은 일을

나눠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로 보기에겐 어려울 정도로 실내디자인이 예술에 가깝다. 고상한 검은 대리석 벽에 예술적인 원형거울이 부착되어 있고 은은한 향수냄새, 부지런히 바닥을 닦아서 늘 청결한 실내, 자동 손말리기 기계가 부착되어 있고, 비누도 잘 구비되어 있다. 모던하고, 심플한 역사 건물처럼 화장실에도 무지막지하게 신경을 썼다는 것이 한눈에도 느껴진다. 지금까지 사용해본 세계의 공중화장실 중에서는 가장 시설이 완벽한 화장실이 바로 워털루 역이었다. 대개 공중화장실은 호텔의 화장실과는 달리 이용객의 숫자가 워낙 많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 관리 자체가 어려운 곳일텐데 워털루 역은 완벽한 시설을 갖춰놓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화장실이었다. 평점은 시설의 크기 A, 편리성 A, 쾌적함 A, 게다가 예술미까지 갖춘 최고의 화장실이었다.



(상)워털루역 화장실의 세면대. ▶ 거울, 세면대, 금속장식등에 예술적 배려를 했다는 것이 느껴진다

(하)깔끔, 단정, 우아한 워털루역 구내. 영국인의 완벽주의가 엿보인다.